

China Weekly Issue

DeepSeek 투자 유치의 의미

- DeepSeek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했으며, 국가 AI 펀드·텐센트·CATL 등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해 AI 인프라와 생태계 확장을 위한 자본 기반을 확보
- 데이터센터·전력·AI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AI 관련 CAPEX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 연구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 본격화 기대
- 투자 관점에서는 서버·광모듈·PCB·반도체 등 AI 인프라 밸류체인이 우선적인 수혜가 기대, 중장기적으로는 AI Agent·전자상거래·게임 AI 등 응용 서비스 영역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

DeepSeek가 약 510억 위안(74억 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가치는 약 540억 달러(3,675억 위안)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자금 조달 자체보다 주목할 부분은 투자자 구성과 투자 구조다. 이번 거래는 중국 AI 산업의 자본 투자 방향과 향후 생태계 변화를 가능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eepSeek는 설립 이후 외부 자금 없이 성장해 왔다. 창업자 량원핑이 이끄는 퀀트 헤지 펀드 환방량화(幻方量化/High-Flyer)가 축적한 자본과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R1과 V4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개발하면서도 상업화와 자본시장 활용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최근 AI 산업은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까지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 자본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DeepSeek 역시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AGI 목표 달성을 위한 자본 기반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DeepSeek 투자 유치의 특징과 의미

이번 달의 특징은 DeepSeek가 투자자를 직접 선별했다는 점이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수의 VC와 국유펀드, 전략적 투자자들이 참여를 시도했으며,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DeepSeek 투자 참여 기회를 둘러싼 중개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높은 관심이 집중됐다.

최종적으로는 창업자 량원핑이 200억 위안을 직접 출자해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고, 텐센트(100억 위안), CATL(50억 위안), 징둥·넷이즈·IDG(각 30억 위안), 국가 인공지능 산업투자기금(10억 위안) 등이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참여 기관 역시 재무적 투자자보다 향후 AI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 인공지능 산업투자기금은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유일하게 직접 지분과 의결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DeepSeek가 중국 AI 산업 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국가 AI 정책 및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도 일정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알리바바의 부재다. 기존의 중국 AI 스타트업 투자 사례를 보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주요 대모델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Moonshot, Zhipu 등 주요 AI 기업 투자 과정에서도 양사가 각자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텐센트가 참여한 반면 알리바바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알리바바가 이미 Qwen을 중심으로 AI 칩, 클라우드, 대모델,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DeepSeek와의 협력보다 잠재적 경쟁 관계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텐센트는 자체 Hunyuan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DeepSeek와도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빅테크 가운데 하나다. DeepSeek-R1 공개 이후 텐센트 클라우드와 위안바오, 위챗 검색 등 주요 서비스에 DeepSeek 모델을 빠르게 적용하며 생태계 확장을 지원해 왔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보다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AI 응용 서비스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징동과 넷이즈 또한 전자상거래·공급망, 게임·콘텐츠 분야에서 DeepSeek 기술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 구성이 향후 AI SaaS, Agent, 게임 AI, 전자상거래 AI 등 응용 서비스 확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 명단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CATL의 참여다. 최근 DeepSeek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체 인프라 구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CATL의 참여는 AI 산업의 투자 범위가 반도체와 서버를 넘어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효율성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인 추진 중인 '연산-전력 협업(算电协同)' 전략 과도 맞물리는 부분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투자 구조 역시 일반적인 벤처투자와 차이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간 투자자는 DeepSeek 자체가 아니라 양원평이 관리하는 유한합자기업을 통해 투자하며 의결권도 보유하지 않는다. 여기에 5년 락업, 투자자 LP 신원 검증, 연구인력 스카우트 금지 등의 조건까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자본을 수용하면서도 경영권과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재 확보 또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꼽힌다. DeepSeek는 투자자들에게 연구인력 스카우트 금지 조건을 요구했고 약 175억 위안 규모의 직원 스톡옵션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경쟁의 핵심 자산을 연구인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회사 가치가 성장할수록 직원들도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핵심 연구진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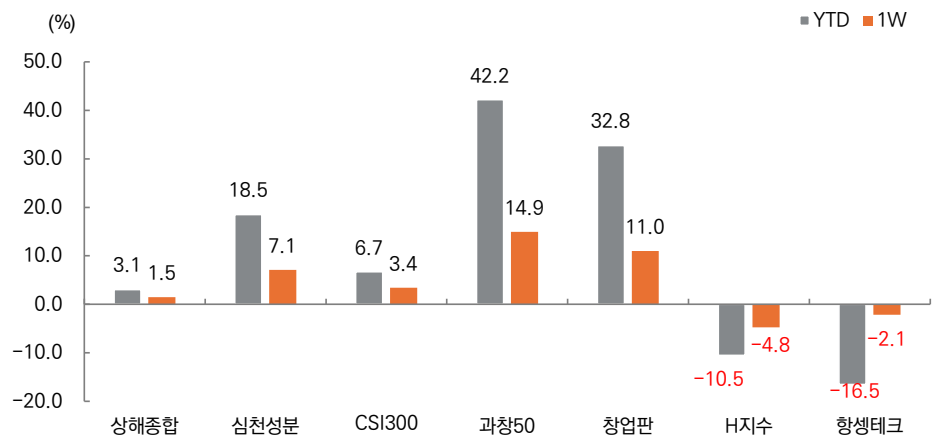
투자시사점: 중국 AI 인프라 국산화 수혜 기대

투자 관점에서는 AI 인프라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 영역으로 판단된다. DeepSeek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클러스터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서버, PCB, 광모듈, 스위치, 냉각 장비 등 관련 밸류체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DeepSeek 신모델의 화웨이 Ascend 칩 최적화 확대로 중국 AI 생태계 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연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두 회사의 협력은 중국 AI 공급망 국산화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Ascend 기반 AI 서버와 클러스터 수요 확충을 통해 관련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AI SaaS, Agent, 게임 AI, 전자상거래 AI 등 응용 서비스 시장 성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텐센트, 징둥, 넷이즈가 참여한 투자자 구성은 DeepSeek의 성장 방향이 모델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AI 서비스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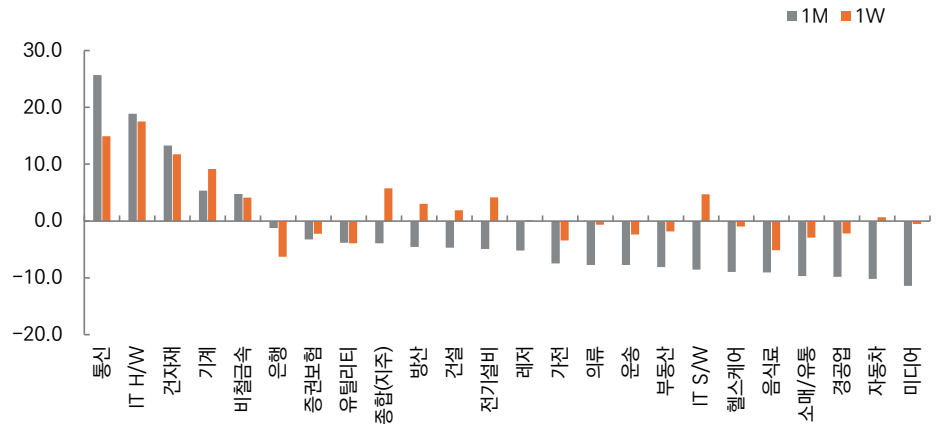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이번 투자 유치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와 연구개발 비용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만 보다 중요한 부분은 중국 AI 산업 전반에서 인프라 투자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DeepSeek뿐 아니라 주요 빅테크와 LLM 기업들의 자금 조달 규모, CAPEX 투자 계획, 데이터센터 구축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AI 인프라·반도체·전력·ESS·AI 응용 서비스 전반의 투자 기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중국/홍콩 증시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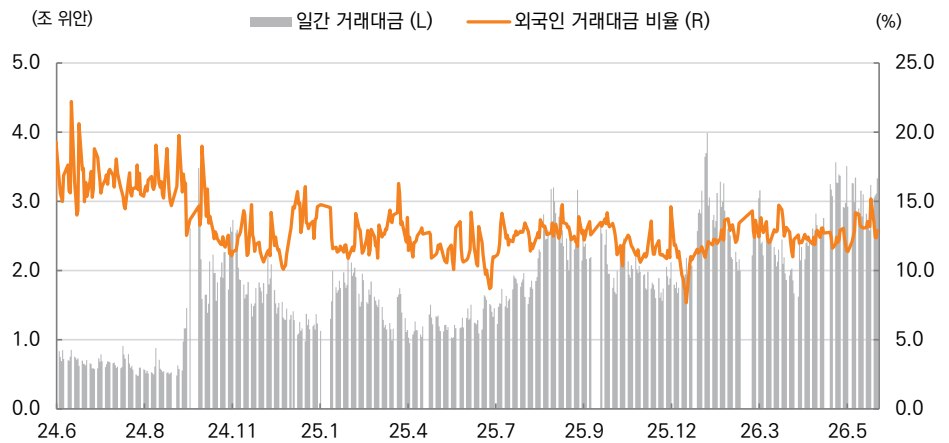
자료: Wind (6/19 기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중국 증시 상승/하락 섹터



자료: Wind (6/19 기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중국 증시 일간 거래대금 & 외국인 거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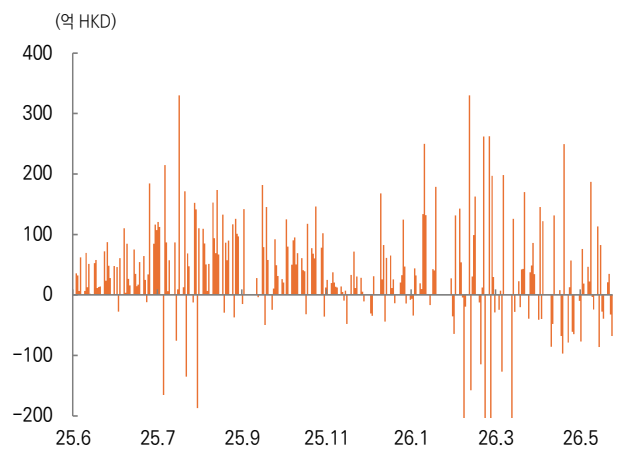
자료: Wind (6/19 기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역외위안화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강구동 남하자금 순매수 추이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1. 강구통 남하자금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1W 기준)

종목명	종목코드	순매수	종목명	종목코드	순매도
건도적총판	1888.HK	97.34	알리바바그룹홀딩스	9988.HK	-142.79
씨엔타오그룹	0148.HK	70.76	시누크	0883.HK	-42.48
Zhipu AI	2513.HK	41.29	텐센트	0700.HK	-26.95
SMIC	0981.HK	31.03	메이투안	3690.HK	-5.86
Tracker Fund of HK	2800.HK	25.11	POP MART	9992.HK	-4.20
장비광섬유케이블	6869.HK	19.80	GIGADEVICE	3986.HK	-0.50
화흥반도체	1347.HK	13.77			
샤오미그룹	1810.HK	6.55			
CSOP HS Tech Index ETF	3033.HK	3.57			
산동목용	0568.HK	0.17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6/22 (월)	6/23 (화)	6/24 (수)	6/25 (목)	6/26 (금)
6월 LPR 금리	중국 하계 다보스포럼 (대련)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